

“얼음이 ‘액체·기체’ 되듯 수행도 꾸준히 열 가해야”

간화선 핵심 ‘전의’ (몸바꾸기)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

재미 불교학자 박성배 교수(뉴욕 주립대)는 간화선의 핵심사상인 ‘전의(轉依)’를 평생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글과 머리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수행 체험이 그대로 학문화하는 그런 연구이다. 2011년 여름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모임은 박성배 교수와 함께 ‘전의’에 대해 토론했다. 학자들은 박 교수에게 질문하고 박 교수는 친절히 그리고 자세히 ‘전의’에 대해 답을 했다. 그 내용을 단독 입수한 본지는 박 교수의 ‘전의’ 가르침을 간추려 심는다. 독자 여러분의 ‘공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불교에서 수행을 말할 때면, ‘전의(轉依 몸 바꾸기, ashraya paravrtti)’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전의’는 간화선(看話禪)의 핵심사상이며 저의 평생 관심사입니다. 1983년 뉴욕주립대학교 출판사(SUNY Press)에서 펴낸 저의 영문판 저서, <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enment (Chapter 16, Revolution of the Basis, pages 126-132)>에서 저의 ‘전의’를 ‘Revolution of the Basis’라 번역했습니다. 2002년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윤원철 교수(서울대)는 이를 ‘몸 바꾸기’로 번역했습니다. (<깨침과 깨달음>, 16장, 230-240쪽, 서울 예문서원 출판). ‘몸 바꾸기’이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며 우리말의 ‘부활’과 비슷한 말입니다.

전의(轉依, ashraya paravrtti)

‘전의(轉依)’ 즉 ‘몸 바꾸기’를 이야기할 때면, 저는 예외 없이 ‘백척간두진일보 현애살수장부아(百尺竿頭進一步 懸崖撒水丈夫兒)’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백척간두까지 가는 사람도 때를 기다려 살아야 하더라도 대개는 마지막 판에 몰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현애(懸崖)라는 말은 천길 벼랑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구각에서 탈피 즉 환골탈태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에 ‘살수(撒手)’ 즉 ‘손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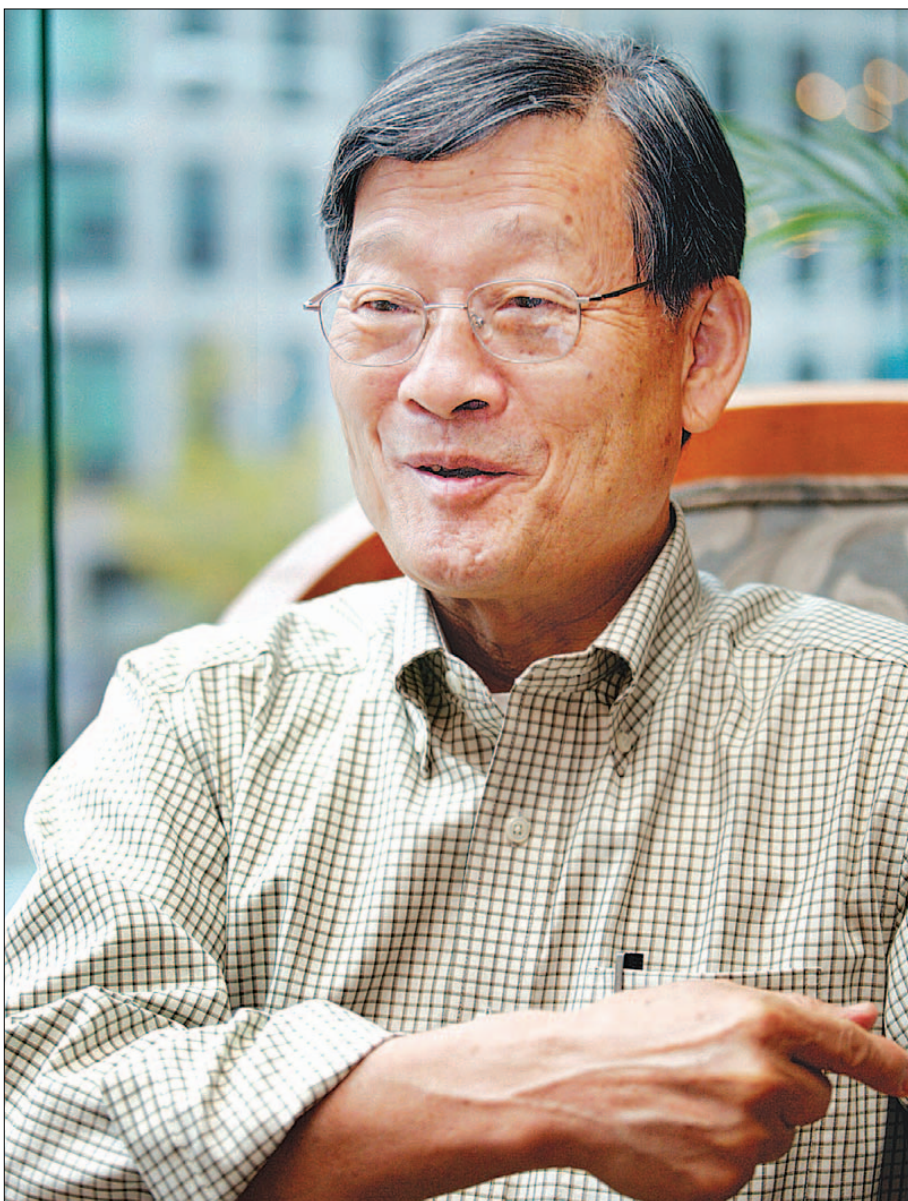
왜냐하면 이제까지 삶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죽음이라고 무시했던 그 길이 진실로 삶의 길이 때 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짜 삶은 죽음이라 생각하고 실제론 죽음의 길이지만 그걸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바로 이때에 일을 치르는 것은 ‘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겉 이때에 죽음을 택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져서 모기떼들이 기승을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어제 밤에 그 가운데 한 놈이 저를 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 놈을 때렸습니다. 모기는 그 자리에서 죽사했습니다. 저는 이때 아무런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엔 그러다 아함경에 나오는 어느 비구 이야기

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에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얼음덩어리는 너무나 딱딱해서 ‘부자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얼음에 열을 가하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됩니다. 물은 액체가기에 고체인 얼음보다는 더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얼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려면 쉬지 않고 계속 더 열을 가해야 합니다. 열이 백도를 넘으면 물은 다시 기체로 변합니다.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 갑니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수증기로 변하는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다른 몸을 봅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입니다.

불교의 수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봅니다. 일생을 얼음 덩어리처럼 고체로 사는 사람도 있고, 물처럼 액체로 사는 사람도 있고, 수증기처럼 기체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의’란 말은 이러한 몸 바꾸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몸 바꾸기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체 같은 몸을 바꿔 액체 같은 몸으로 사는 것으로 몸 바꾸기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열을 가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몸을 바꿔 수증기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같은 몸으로 전의를 합니다. 공기라야 천하를 뒹뒹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불교적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몸 바꾸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몸 바꾸기의 원동력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계속 열을 가하는 ‘꾸준함’과 ‘치열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모기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져서 모기떼들이 기승을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어제 밤에 그 가운데 한 놈이 저를 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 놈을 때렸습니다. 모기는 그 자리에서 죽사했습니다. 저는 이때 아무런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엔 그러다 아함경에 나오는 어느 비구 이야기



박성배 교수는 ... 1933년 9월 21일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박성배 교수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주변 사람들을 잃는 그는 의대에 진학했지만, 인문학 연구에 평생을 매진하기로 결심한다. 조계종으로 출가한 박 교수는 1955년부터 2년 동안 대흥사에서 전강 스님의 지도로 참선 수행했다. 1956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철학과에 들어가 1960년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63-1969년까지 동국대 교수를 지냈다. 1969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직을 돌연 사직한 박 교수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40대 늦깎이 유학에, 낮에는 노동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보며 고된 생활을 했지만 1977년 버클리대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곳에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고 소장도 겸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가 여행 중에도 독을 만났습니다. 도둑들은 비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은 다음, 그 비구를 넘어뜨려 두 손을 길가에 있는 키 큰 풀에다 묶어 놓았습니다. 부처님의 불살생계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비구는 풀에 묶인 채 거기서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어하면 풀이 뿔뿔히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어설지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 비구는 풀 한 포기 뽑히는 것 정도야 불살생계를 범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말하지만 그 내막을 드러다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그 다른 점을 들여다 보면 한 쪽은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식이고 다른 쪽은 풀 한 포기도 뽑아죽게 하지 못하는 식입니다. 전자가 말단의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후자는 쉬지 않고 꾸준히 철저히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과 속이 일치하고 앞과 뒤가 일치하며 간단없이 버티는 수행과, 결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도 다른 수행은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습니다.

불교적 수행의 핵심은 쉬지 않고 꾸준히 열을 가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풀에 묶인 비구의 이야기도 알고 보면 그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쉬지 않고 계속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열을 가했다 말다 하는 일이 아

닙니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몸 바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몸 바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꾸준히 열을 가해야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고 현애에서 살수하는 몸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 되는 몸 바꾸는 열을 가했다 말다 하는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몸은 바꿀 때도 그렇고, 입담이 겨란을 병아리로 부화할 때도 이치는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는 아함경의 비구 이야기를 다시 음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몸바꾸기’ 즉 ‘전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목들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의’ 없는 수행은 불교적 수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의(轉依)와 의단독로(疑團獨露)

참선을 이야기하는 이상, 無字十種病은 학자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그래서 고봉의 선요도 대혜의 서장도 지눌의 간화결론도 성철의 선문정로도 모두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모두들 참선한다면서 어딘가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책 <깨침과 깨달음>, 제 16장에 나오는 전의(轉依, 몸바꾸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문으로 전의(轉依)라고 말할 때의 ‘의(依)’자가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의(依)’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또는 지금의 나를 나답게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란 뜻인데 이런 것들을 송두리채 뒤집어 엎어 버린다는 말이 ‘전(轉)’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의(轉依)’란 말에 대한 저의 어원적 해석입니다.

1975년의 일입니다. 버클리에서 한참 박사학위 따려고 서두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부산하게 이것 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집 응접실의 책상과 의자들이 엎어지고 벽에 걸린 거울과 그림들이 떨어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은 저의 지진 경험이었습니. 그러나 저는 그때 그것이 지진인줄 몰랐습니다. 흥분백산이라 할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고 박사학위고 가족이고 뭐고 아무 것도 남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일시에 다 없어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우리들이 얼마나 땅에 의존(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依)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훈교, 기독교, 회교 등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다분히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의(依)의 성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처님도 많은 경우에 의(依)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의 돈도 의(依)입니다. 가족이나 국가나 민족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의(依)입니다. 학자들의 지식도 의(依)입니다. 그런 의(依)를 송두리채 뽑아 내버린다는 말이 전의(轉依)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 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불교의 유식학입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깨침 사상은 이론적으로는 다분히 유식학의 인간 의식 이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종의 ‘참구문 활구참선(參句門 活句參禪)’의 간화결론 말미: “참의문이 아니고 참구문이라야 하며 참구문에서도 사구참선이 아니라 활구참선이라야 한다...” 운운 참조 세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참선의 진면목은 의단독로(疑團獨露)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단독로가 되지 않으면 빛지 다 해도 도로아미타불을 면치 못합니다. 여기서 의단독로가 바로 전의(轉依)입니다.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의단독로가 되지 않으면 전의는 물 건너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A wrong address!”

성철스님에 따르면 ‘돈오돈수’는 삼관(三關: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고 정각, 묘각, 구경각의 경지(6식, 7식, 8식, 9식의 경지)마저 깨끗이 떨쳐버린 사람의 경지라고 합니다. 요즘은 돈오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를 몸짓문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요즘의 표현으로 “A wrong address!”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꼴과 똑 같습니다. 이를 저의 몸과 몸짓의 논리로 재정리해보면, 문제는 우리들이 몸짓문화의 감옥 속에 갇혀 자유를 잃고 노예생활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살면서도 이런 엉뚱한 사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든 역대조사들의 말씀이든 누구의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이 몸짓문화 속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굳어져 있다면 그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무효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모두 사람 죽이는 독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참뜻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몸짓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 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면 그 경지에서는 모든 몸짓문화가 다 그 속에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응병약으로 적절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선지식은 돈오돈수의 세계에서 3000계를 다 지키면서 철두철미 더욱 치열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식이라고 하면 내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발 그만 몸짓문화의 노예같은 범새를 쫓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망언을 용서하십시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볼기2557(2013)년 수능100일기도 접수
(고입,대입,교사임용고시,사법.행정고시,취업성취)

입재 2013년 7월 31일 선본사 상단(갯바위 부처님전)
회향 2013년 11월 7일 선본사 상단(갯바위 부처님전)

문의 및 접수처
선본사 종무소(극락전) 053-851-1868
중단 종무소(대웅전) 053-853-9877
상단접수처(갯바위 부처님전) 053-851-1869

동참비 10만원
대구은행 179-04-060280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성인사·삼도사

주 지 **정비룡**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외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남서리 19 TEL 054)791-5011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외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태하리 562 TEL 054)791-5457